

## 다윗의 광야 체험과 인간 개조

성경말씀: 삼하16:5-14

우한 폐렴 코로나 19 사태로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확진자가 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광야의 체험이라고 믿고 광야 시리즈 설교 지난 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예,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 자기 세대를 섬겨야 한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좋지 않다. 광야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은 어떻게 다윗이 자기 세대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롬15:4 <다윗의 광야 체험과 인간 개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 오늘 설교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다음 주

설교의 모티브를 얻기 위해 구글에 가서 <David and the wilderness>를 찾았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개신교 목사나 저자가 쓴 글이 아니다. One For Israel이라는 유대인 선교 사역 단체가 낸 글,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켜서 특별한 왕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설교는 이 글을 바탕으로 살을 붙여서 이루어졌다.

###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사무엘기상하/열왕기상하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유다에는 르호부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총42명 42명의 와들 가운데 최고의 왕은 다윗이다.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실수, 약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가장 위대한 리더, 예배자, 시인, 음악가, 참으로 인상적인 사람

그런데 그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뒤 왕이 되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 계보의 조상,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왕 삼상 15 사울의 불순종, 아말렉 전멸 명령 거부, 아각을 살려둠, 하나님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시기로 하심

삼상 16장, 17세의 소년 목동 다윗,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16:13).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세상의 왕은 사울,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은 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무려 13년 동안 그를 몰고 갈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 뒤 17장에는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기사,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다윗이 해낸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 18:7 여인들의 노래, 사울의 분노,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딸을 주겠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 함, 그가 어디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직접 가서 그를 죽이려 함

(\* ) 활을 쏘는 궁수, 멀리 쏘려면 활을 뒤로 뒤로 자꾸 끌어당겨야 한다. 바로 이런 일이 그에게 생겼다. 궁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에게 왕좌를 약속함 그리고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멀어지게 그를 뒤로 당김 반대 방향으로

왕이 되면 누릴 향연, 음악, 좋은 집, 기름진 음식, 귀중품, 사치품 등은 전혀 없고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침과 저녁의 고독함, 음식의 피폐함, 사람들의 배신 등을 겪어야 했다. 삼상 21장,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가드 왕 아기스, 정신병자처럼 미친 짓도 하였다(13-15).

사울은 개를 사냥하듯 다윗을 사냥하려 하였다. 그는 반대 목숨,

그 시절에 그가 지은 시편들은 그의 스트레스, 그의 눈물, 그의 절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시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한 능력을 확신함 광야에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늘 아버지의 품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한다. 사실 그는 이런 교훈들을 잘 배웠다.

이런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은 왕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그보다 뛰어난 왕은 없었다.

## 개조된 인간 다윗

사람들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한다. 세상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수많은 왕들이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 다윗도 인간이기에 약점과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 후반기는 또 다른 역경의 시간 가장 큰 치욕과 아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함

삼하15:30, 다윗의 슬픔

16:5-14에 기록된 말씀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5-8)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9).

시므이는 미치광이 같았는데도 여하튼 다윗의 반응은 놀랍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

그는 두 가지를 배웠다.

1.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10).

2. 자기의 명예, 가치, 안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12).

시므이가 이런 악한 짓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리라 확신하였

다. 시므이가 무슨 말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았다.

즉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미치광이 같은 자가 저주를 퍼부어도 조용히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무슨 일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라 확신하였다. 이것은 내가 질 수 없는 게임이므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 행동, 공의를 확신함을 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취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심을 그는 알았다.

또한 자기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해도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다윗의 확신: 나의 안전은 내가 왕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명예 부귀 등에 있지 않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에 있다.

“하나님은 내가 13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시절에 수도 없이 신실하심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자기가 가장 신뢰하던 신하 아히도벨의 반역도 있었다.

아히도벨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서 다윗을 돕던 사람(16:23)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삼하15:31-32)

그는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였다. 분노, 공포가 먼저가 아니었다. 기도가 먼저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장 무서운 때에 그는 하나님 자기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인간의 일에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신뢰함

그래서 분노, 저주, 복수심 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였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분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배신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았다.

성경에는 이렇 모습의 다윗이 여러 차례 나온다. 분노를 자제하고 하나님께 내어맡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놀랍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인다(삼하22:38).

즉 그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였다.

### 어떻게 가능하였나?

다윗은 17살에 왕이 되도록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30살에 왕이 되었다. 13년 동안의 갱

그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대언자 사무엘이 와서 그의 모든 형들을 제치고 막내인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기름부음을 받은 청소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무려 1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위기를 다루는 방법, 동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 공물을 베풀 줄 아는 것, 자기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 것  
신병 훈련소로 표현될 수 있는 그 13년의 광야 체험, 무섭고 두렵고 끝이 없는 듯한 시절, 재난의 시절  
매일 죽음을 체험하는 시절, 그러나 그 13년이 있었기에 그는 4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말(삼상20:3)

사실 그 기간에 그는 사울을 죽이고 쉽게 왕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삼상24:1-7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사람들을 저지시키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사울을 보호한다.

그는 올바른 일을 하기를 선택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종종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실패와 좌절과 역경의 감정이 실제로 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가 헛되이 흘린 눈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듯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윗 말고도 성경에 상당히 많다.

요셉을 보라. 그도 13년 동안 이집트 감옥 생활, 종살이, 그러나 13년 뒤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진 때부터 성취될 때까지 그 기간은 참으로 거칠고 힘든 훈련 과정이었다.

요셉의 경우 시105:18-19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 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우리를 정제하고 훈련하는 기간임을 알게 된다.

그때에는 모든 일이 약속과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을 보라, 약속이 주어진 때와 성취된 때가 수백 년은 되는 것처럼 보였다.

활 쏘는 사람의 활을 생각하기 바란다. 뒤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앞으로 많이 나아간다.

목동 시절, 광야에서 무릿때로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이 결국 폴리아트를 사냥하게 함

13년 동안 광야의 거친 시절, 그것이 40년 동안 최고의 왕이 되게 하였다.

이 기간에 그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왜? 광야는 앞으로 매일 올 것이므로

#### 광야를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19로 절망하는 분들, 병, 실직, 구직, 경제, 가정...

암 등으로 투병하는 분들

나라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나도 같이 울고 싶다. 이렇게 무지할까?

5월 8일 금요일 조선일보 기사,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맛 잃은 소금'에 비유한 이유

최재형 감사원장은 4월 20일 실·국장 회의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馴致·길들이기)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다 그러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  
자유를 버리고 속박의 길, 친중 반미, 종북 하고 있다.  
다윗과 바울,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광야의 때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만나와 생수와 까마귀를 매일 보내신다. 가루 통과 기름 병이 고갈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나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쓰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북한 땅이 자유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https://www.oneforisrael.org/bible-based-teaching-from-israel/bible-teachings/god-trained-david-extraordinary-king/>